

1860 1865 1870 1875 1880 1885 1890 1895 1900 1905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인종 정의 연대표

미국 역사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역사 속에서 인종 정의의
중요한 순간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1860 1865 1870 1875 1880 1885 1890 1895 1900 1905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1860 1865 1870 1875 1880 1885 1890 1895 1900 1905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인종 정의 연대표

미국역사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역사 속에서 인종 정의의
중요한 순간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인종 정의 연대표

감리교 교단에 미친 인종 정의에 대한 문제는 노예제도와 감독의 권한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1844년에 교단이 둘로 나뉘게 만들었다. 남부 지역의 교회는 교단에서 나와서 남부 에피스코팔 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를 세웠다. 남북 전쟁 이후 몇 년 동안 이전의 교단 전체에 여성 선교 기관들이 생겨났다. 인종 불평등에 맞서고 포용성을 추구하는 일은 기관의 선교에 대한 정체성을 확장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은혜로 자매가 된 자로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실천하라는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며 한 몸이 된 식구임을 믿는다.

우리는 인종 정의 헌장에 나와있는 원칙들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것을 확실히 말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은 심각한 죄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거부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이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한 관계에 해를 입혀왔던 많은 방식들에 대하여 애통한다. 우리는 개인, 상호, 단체, 문화, 그리고 조직의 모든 단계의 인종차별을 없애려는 사역을 계속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1857-1939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다.
하지만 남북전쟁, 경제 팽창,
그리고 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은 인종차별주의와
백인특권이
그 자리를 파고들다.

1857-1939

연합감리교회
전통을 가진 여성들이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뻗어 나가다.
백인특권이
그 자리를 파고들다.

1857-1873 미국

1857-1873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통

1857



1857: 드레드 스캇 대 샌드퍼드(Dred Scott v. Sandford)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흑인들은 어떤 시민권의 가능성도 거부당하다.

1860-61: 노예제도에 찬성했던 열 한 개의 주가 연합과 미합중국에서 탈퇴함으로써, 남북 전쟁의 불씨가 되다.

1862: 자영 농지법(The Homestead Act)은 서부지역 미원주민 소유의 3억 1100만 에이커의 땅을 유럽 이민자, 땅매매업자, 그리고 철도 회사들이 살 수 있게 하다.



1863: 노예 해방 선언으로 노예들이 해방되다.

1864: 국회는 미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미 원주민 어린이들을 기숙 학교에 보낸다.



1865: 센트럴 퍼시픽 철도회사(Central Pacific Railroad)는 대륙횡단 철도를 지을 중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하다.

재건(Reconstruction): 흑인들은 시민권을 얻게 되고 공교육과 선출직에 동원되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테러 운동을 시작하다.

1866: 위협과 폭력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이 만들어지다.

1873

1863: 1863년 7월에 노예 해방 선포와 함께 빅스버그(Vicksburg)가 함락되자 연합 형제 교회는 사라 디키(Sarah A. Dickey)를 해방된 노예들을 교육을 위해 빅스버그로 보냈다. 남부에서 수 년 동안 미 흑인 공동체와의 협업으로 인해 그녀는 배척, 괴롭힘, 그리고 폭력을 당했다.



1870: 이사벨라 소번(Isabella Thoburn, 오른쪽)과 클라라 스웨인(Clara Swain)은 여전도회 해외 선교회(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의 원조를 받아 인도 여성들과 사역을 시작하다. 1870년에 소번은 이후에 이사벨라 소번 대학이 되는 학교의 기초를 세우다.



소번은 1892년에 릴라바티 싱(Singh, 소번의 왼쪽)을 학교의 유일한 인도 현지 교직원으로서 채용하다. 소번의 사망한 후에 싱은 부교장으로 임명되었다.

1873: 베넷 칼리지(Bennett College)의 전신이자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위한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워렌스빌(Warrens ville) 연합감리교회 지하실에서 시작되다. 1926년 여성 가정 선교회가 미흑인 여성을 위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교회의 교육 이사회에 참여했다.



1880

1882: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ary Act)으로 10년 동안 중국인 계약직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다.

1883: 시민권법으로 알려진 다섯 개의 사례 속에서, 연방 대법원은 1875 시민권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짐 크로(Jim Crow)법과 린치(lynchings)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1896: 미 연방 대법원은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재판에서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인종 분리 정책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다.

1898: 미국이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쿠바, 그리고 하와이를 합병하다.

1899

1880: 제니 하르트젤(Jennie Hartzell)은 감리교 여성들에게 “남부의 해방된 여성들”과 일할 사역을 조직하라고 당부하다. 여성들은 “인종의 구별 없다”는 의미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여성 가정 선교회(the Woman's Home Missionary Society)를 조직하다. 이들의 사역은 이민 온 소녀들을 위해 가정과 서부의 몰몬교 여성들과 미 원주민들과의 연결망을 갖는 일로 확장되다.

마리아 스톤으로 알려진 쉬 메이유(Dr. Shi Meiyu)는 중국 중부 지역의 첫 번째 여성 의료 선교사이다.



1885: 여전도회 해외 선교회의 메리 플레처 스크랜튼(Mary Fletcher Scranton)은 한국에 소녀들을 위한 첫 여학교를 세웠다. 이 후 이 학교는 이화 여자고등학교가 된다. 스크랜튼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우게 된다.

1887-1906: 선교회는 첫 미 흑인 여성 선교사들을 아프리카로 파송하다. 이들은 수잔 콜린즈, 마르다 드러머, 그리고 안나 홀이다.

1888: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의 여성 가정 선교회는 뉴욕 시에 이민 소녀들의 집을 세우다.



1890: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에 있는 하우드 학교, 로스엔젤레스의 프란시스 드 파우 산업 학교, 그리고 후에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산 후안의 조지 오 로빈슨 학교가 히스패닉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다.

1899: 김세지(Kim Seji)는 한국의 첫 번째 여자 성경학교 학생이 되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여성 가정 선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시 이민 여성들이 일터와 집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금문 여성의 집과 같은 전국 선교 기관들을 세우기 시작하다.

1899-1919 미국



1900: 주로 북 유럽에서 온 천 사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1900년과 1920년 사이에 미국에 도착하다. 중국인 배척법은 1892년에 10년이 더 연장되었는데 1912년에 영구화 되다.

1903: 7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파업 노동자들 대신 노동자로 하와이에 도착하다.

1907: 신사협정(The Gentlemen's Agreement)은 일본인 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막았다.

1909: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ACP)가 설립되다.

1910: 멕시코 혁명은 농부들이 안전과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 국경지대로 쫓겨나게 하다. 흑인 대이동: 백 만이 넘는 미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하다.



1917: 미국이 1차 세계 대전에 출전하다.

1919

1899-1919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통

1900

1899: 여성 선교사 협회의 지도자들이 소수 인종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테네시주의 내쉬빌에 있는 전국 선교 기관인 베들레헴 센터를 설립하고자 기독교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의 샬리 힐 소이어(Sallie Hill Sawyer)와 일하다.



1906: 안나 홀과 마르다 앤 드러머는 여전도회 해외 선교회에 의해 아프리카로 파송된 첫 미 흑인 여성 선교사들이다. 이 선교회는 그 후 50년 동안 미 흑인 여성들만 오직 아프리카로 파송하기 시작하다.

1907: 미 원주민 여성인 샌디 찰라키는 전통 언어와 전통 공예를 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다. 그녀의 전통 언어로 개체 여성교회 회의를 진행한다.

로이스 G. 닐 목사가 태어나다. 그녀는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 연회의 첫번째 미 원주민 여성 감리사이다. 닐 감리사는 다른 미 원주민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성으로서 응답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멘토링을 한다. 그녀는 "여성들은 여성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대는 그대가 이루어야 할 부르심이 있다."고 말한다.



1912: 남부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와 흑인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의 여성들이 인종 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다.

1914-1930: 여전도회 해외 선교회는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쿠바의 있는 스페인어를 하는 여성들의 여성교회를 조직하려고 일하다.

1919

1919: 미국의 법무부는 파머의 습격(Palmer Raids) 동안에 남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외국인(alien)”을 붙잡아서 미국으로부터 내쫓다. 수 천명이 체포되고 많은 이민 활동가들이 추방되다.

1920: 미국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허용되었으나, 모든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1921-1930: 미국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수 천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이 추방되다.

1921: 긴급 이민법(Emergence Quota Act)은 유럽인들의 이민에 유리하게 작용하다.

1922: 케이블 법(Cable Act)은 어떤 여성 시민권자라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자신의 미국 시민권을 잃을 것이라고 법령을 발표하다.

1923: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아시아인들이 “백인(Caucasian)”으로 여겨질 수 있어도, 그들은 백인이 아니고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다.

1924: 인디언 시민법은 원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다.

아시아인 이민은 중국계 미국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해서 금지되다.

1926



1920: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의 여성 선교사 협회의 남부 백인 여성인 캐리 팩스 존슨은 흑인과 백인 여성들이 함께 일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인종 관계 위원회의 의장이 되다.

1926: 여성 가정 선교회와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 교육부의 합작 투자로 베넷 대학을 재조직하여서 북 캐롤라이나의 그린스보로에 사는 젊은 흑인 여성들을 위한 4년제 리버럴 아츠 컬리지가 되다.



1924-1939 미국

1924: 쿠 클럭스 클랜(KKK)은 인종차별이 1965년에서야 공식적으로 미국 이민 정책의 일부가 될 때까지 이민법(National Origins Act)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

처음으로 “합법”과 “불법” 이민자의 구분이 정해졌고, 미국 국경 순찰대가 만들어졌다.

1929: 주식 시장 붕괴로 대공황이 시작되다.
이민법은 유럽인들의 이민을 연간 십 오만명으로 제한하다.



1933: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작하다.
대부분의 미 흑인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었고, 국내 노동자들, 철도 짐꾼들, 그리고 농업 노동자들도 제외되었다.

1934: 미국은 당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이민자들의 이주를 제한하고,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국 내 필리핀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재분류하다.



1938-1940: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다. 노동력 부족이 이민 정책의 변화를 일으켜서 멕시코인들과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게 되다.

1924-1939 연합감리교회 여성선교회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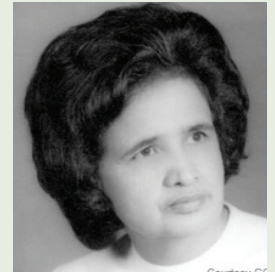
1925

1930: 남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의 여성 선교사 협회 직원인 B.W. 립스콤 부인은 서부 멕시코와 텍사스 멕시코 연회에서 연회 여성 선교사 협회의 조직화를 돕다.



1931: 감리교의 활동적 여성인 제시 대니엘 에임즈는 린치 반대 운동의 남부 여성 협의회의 집행 이사이다.

1933: 전 리오 그란데 연회의 여성 조직(The Women's Organization)은 남서부의 히스패닉 여성들에 의해 처음 조직되었다. 미네르바 가르자는 이 조직의 초기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1944년에서 1970년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지도자로 섬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연회를 보존하는데 헌신하였다.



1938-1940: 여성 선교회가 남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의 미 원주민 선교회에 의해 조직되다.

1939: 기독교적 섬김을 위한 감리교회의 여성선교회, 웨슬리 봉사 조합, 그리고 기독교적 봉사의 여성 분과가 만들어지다. 감리교의 세 교단이 합병되어서 미 흑인들을 위한 분리된 관할 지방 즉 중앙지역총회(the Central Jurisdiction)가 만들어지다.

1939

1940-1962

냉전과
탈식민주주의는
미국의 생각과
현실을 바꾸다.

1940-1962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통은 인종 정의에
대한 연구와 지지를
확장하다.

1940-1947
미국

1940-1947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통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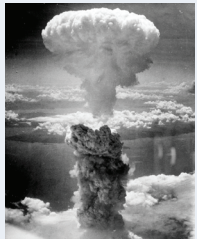
1940: 외국인 등록법인 스미스 법은 14살 이상 이민자들의 등록과 지문 날인을 요구한다. 이 법은 독일계나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아니라 주로 일본계 미국인을 주요 표적으로 삼으면서 “적대적 외국인”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정보 수집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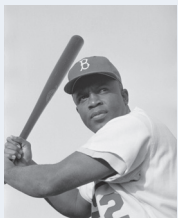
1942: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11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강제 수용을 허가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 시민으로 재분류되어 군대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945: 독일이 항복하다.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다. 일본이 항복하다. 유엔이 창립되다.



1946: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다. 필리핀계 미국인들의 시민권은 취소되다.



1947: 잭키 로빈슨이 미 야구의 흑인 차별을 깨다.

1947

1940: 델마 스티븐슨은 새로 조직된 감리교회 안에 기독교 사회 관계에 관한 여성 분과의 대표가 되다. 그녀는 첫번째 인종 정책 정관(1952)을 작성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고, 교회에서의 인종 분리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28년 동안 그녀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역에서 감리교 여성들을 인도하였다.



미 흑인 여성들은 이제 중앙지역총회로 분리가 되었고, 그녀들은 모든 인종의 여성들이 자기들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함으로써 온전히 통합된 조직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지키다.

1941: 기독교 봉사의 여성분과는 “모든 회원들이 어떠한 인종 차별도 받지 않고 목을 수 있는 곳에서만 회의를 연다”는 정책을 채택하다.

릴리안 워릭이 여성분과의 첫 흑인 여성 직원으로 선출되다.

1942: 감리교회의 여성분과는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

세인트 루이스 호텔에서 흑인 여성들에게 숙박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감리교 여성들의 최초 전국 4년차 대회를 미조리주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로 장소를 옮기다.

1944: 스페인어를 하는 엘리다 가르시아 데 팔콘은 프로그램 책자를 스페인어로 번역을 시작하다. 그녀와 그녀의 딸 클로틸드 누네즈는 26년 동안 번역을 계속하게 된다.

1947: 전국 세미나는 여성분과에게 인종사역 특별 위원회를 만들라고 불을 지피다. 그들은 정관과 국내와 해외 선교부의 기관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종 사역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다. 여성분과는 인종, 믿음, 그리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교육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미 상원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다.

1948

1948: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군대 안의 인종 분리를 끝낸다.

인종차별 정책, 즉 아프리카인, 백인, 미 원주민, 그리고 백인 소수자 법 아래 있는 "유색인"에 대한 법적 분리 정책이 남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난다.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다.

1952: 맥카런 월터법은 시민권에 대한 인종의 벽을 없애고, 이민자들의 쿼터를 축소하고, 냉전 맥카시즘의 한 조항인 "전복 활동"을 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허용되다.

1953: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 이민자들의 두 번째 물결이 미국에 들어간다. 수 천 명의 한국 여성들이 미군들과 결혼하다.

1954: "젓은 등 작전(Operation Wetback)"으로 200만명 이상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추방되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은 학교의 인종 분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고 선언하다.



1954

1948: 여성분과와 중앙지역총회는 뉴딜 정책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농장 노동자들과 가사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을 지지하다.

1949: 엘렌 바넷(오른쪽)과 펄 벨린저는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지역에 파송을 받은 첫 미 흑인 여성 선교사들이다. 그들은 여성 분과의 후원을 받아 단기 3년 젊은 여성 선교사 프로그램의 구성원이다. 바넷은 인디아와 파키스탄에서 장기 기간 선교사로서 사역을 이어가다.

도로시 로저스 킬리(오른쪽)는 남부 백인 여성이자 기독교 봉사 여성회 회원으로 트루먼 대통령 인권 위원회에서 일하다.



1950: 태평양 일본 감리교 임시 연회의 일본계 미국 여성 일세대들(Nisei)이 감리교 여성교회를 조직하다.

1951: 여성분과의 의뢰로 미 흑인 여성 파울리 머리(Pauli Murray)의 책,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주정부 법」이 출판되다. 이 책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핵심 자료가 되다.



1952: 기독교 봉사의 여성분과를 위한 인종 정책 현장을 채택하다. 모든 분과, 이사들, 직원들, 선교 인사과, 그리고 프로젝트에 모두가 이 정관을 참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지다. 가장 주된 핵심은 흑인에 대한 법적 분리였다.

기록 담당자인 제이 어니스트 월킨스는 미 흑인 최초 여성분과 임원이다.

1955-1962 미국



1955: 알라바마 주의 몽고메리에 있는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ACP) 지부의 서기인 로자 팍스(Rosa Parks)는 그녀의 자리를 내어주라는 시내 버스 운전사의 명령을 거부하다. 이 일은 몽고메리가 버스 보이콧 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시내 버스 탑승의 흑백분리의 폐지로 이어지다.

1960: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롤리에 있는 쇼(Shaw) 대학교에 학생 비폭력 조정 위원회(SNCC)가 창립되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스보로에서 흑백분리에 반대하여 흑백 학생들이 런치 카운터의 연좌 시위(sit-in)로 저항하다.

1961: 미 원주민의 인구가 8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절반은 원주민 보호구역에 살다. 500명의 추장과 도시 인디언 원주민 지도자들이 시카고에 모여 전국 인디언 청소년 협의회를 만들다.

남부를 가로지르며 일어난 자유 탑승(Freedom Rides)이 주가 교차하는 여행 시설에서 인종분리에 반대하기 위해 연방법에 불응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되다. 천 명의 흑인과 백인 지원자들이 참여하다.

1962: 세자르 차베스와 돌로레스 후에르타는 전국 농장 노동자 협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조직은 1966년에 연합 농장 노동자 연맹이 된다.

다니엘 이노우에 그리고 스파크 마츠나가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첫번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다.

1955-1962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통

1955

1954: 여성분과는 연회와 지역총회에 인종 정의 정책 정관을 채택하여 인종 정의의 실행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다.

여성분과는 14번째 수정헌법을 침해하는 공교육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다.

1955: 복음주의 연합 형제 교회의 여성 협의회는 “인종적 긴장을 완화”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미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공립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폐지를 돕는 사역에 대한 투표를 하다.

1958: 리오 그란데 연회에서 미네르바 나네즈 가르자에 의해 조직된 첫 스페인어 선교학교가 열리다.

1960: 2월 2일에 미 흑인 여성들을 위한 학교인 베넷 칼리지의 후원을 받은 여성분과 소속의 네 명의 여학생들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스보로 이웃 대학에 다니는 네 명의 흑인 남학생들과 함께 울워스 지역의 런치 카운터의 연좌 시위에 동참하다. 여성분과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 전역에 있는 감리교 여성들에게 이 학생들의 수고를 지원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를 요청하다.



1962

1962: 여성분과는 새로운 인종 정의 정책 정관을 채택하다. 이후 감리교 총회에서 여성분과의 탄원으로 이 정관이 채택되다.

1963-1975

시민권,
반전운동,
대빈곤전쟁,
그리고
개정 이민법이
미국의 모습을 바꾸다.

1963-1975

1972년에
새롭게 조직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회원제도,
지도력, 그리고
참여의 다양성
확대를 추구하다.

1963-1966 미국

1963-1966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통

1963



1963: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ACP)의 지도자 메드가 에버스가 살해당하다. 한 달 후에 워싱턴 D.C.에서 미 전역에서 가장 큰 시위대인 25만 명이 시민권 입법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려고 모이다.

1963: 9월 22일 국제연합(UN) 교회 센터가 뉴욕시에서 헌당되다. 감리교 기독교 봉사 여성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아 에큐메니컬 감리교 지도력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센터는 국내 그리고 국제 이슈, 평화와 국제 문제에 대하여 일하는 비 영리단체들, 그리고 해방과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미나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여성분과는 흑인들의 직장과 평등권을 위하여 워싱턴을 향한 행진 계획에 참여하는 에큐메니컬 그룹들을 후원하다.



1964: 자유 여름(Freedom Summer)에 미 흑인 유권자를 등록시키려는 거대한 노력이 있었다. 백인들만 참여해 온 미시시피 대의원회의 전국 민주당 대회에 흑인 미시시피 자유 민주당 대의원들이 의석을 요구하려고 참여하다.

시민권 법안이 통과되고, 24번째 수정 헌법은 인두세(poll tax)를 폐지하다.

1964: 인종 차별에 도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미션 학교들의 관할권을 교차 관할권에 기초하여 조직함으로써 지역구의 학교가 되다.

여성분과 직원들이 피츠버그의 총회에서 중앙지역총회에 대한 인종차별을 폐지하라는 시위에 동참하다. 페기 빌링스는 남부의 백인 여성으로서 여성분과의 인종 정의에 대한 첫 총무가 되다. 인종 정책 정관은 여성분과의 인종 정의에 대한 사역을 넓히고 교회와 사회안에 있는 인종차별 구조를 없애려는 교회차원에서의 노력에 비전을 주다.



미 흑인 제임스 채니, 백인 마이클 슈워너, 그리고 앤드류 굿맨(왼쪽 세 명의 사진)은 미시시피 주에서 흑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위해 일 하다가 KKK에 의해 살해 당하다.

1965: 여성분과는 선교부와, 기독교 사회 관심부, 그리고 감리교 학생운동의 다른 부서들과 함께 셀마에서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까지 투표권을 위한 시위에 동참하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빈곤전쟁을 시작하고, 미국 안에 인종에 따른 빈곤 문제를 알리다.

1966

1966: 미 흑인 여성들과 첫 번째 협의를 거쳐 모든 교회 안에서 미 흑인 여성의 지도력에 대하여 여성분과에 추천하다.



1965: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행진은 경찰의 공격으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피의 일요일”이라고 불린다.

투표권 법안이 통과되다.

교육과 취업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인종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이라는 말이 생겨나다. 1968년까지 60퍼센트의 미 흑인들이유권자 등록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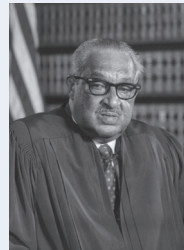
민권운동을 시작으로 미국 입국의 근거가 되는 인종, 신조, 그리고 국가별 이민자 쿼터를 이민법에서 삭제하다.

미 흑인 거주지인 로스엔젤레스 왓츠에서 도시 시민 폭동이 일어난다.

1967: 서굿 마셜이 미 흑인 최초로 미국 연방 대법원 복무에 지명되다.

타인종과의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다. 뉴저지주의 뉴왁과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는 북부에서의 인종 갈등과 베트남 전쟁으로 쟁점을 넓히다.



1968: 공평주거권리법(Fair Housing Act)이 통과되다. 이중언어 교육법은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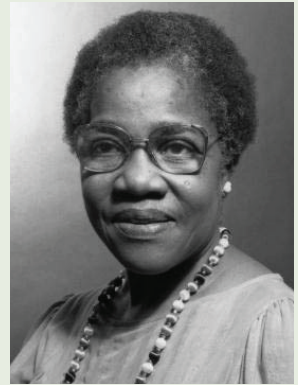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하다.

1966

1970

1968: 테레사 후버는 미 흑인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교회 조직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여성분과 사무국장이 되다. 그녀는 1990년까지사무국장으로 섬겼다. 그녀는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멘토였고, 평신도 여성들의 지도력을 높였고, 격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교단의 여성 조직의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하였다.

총회에서 감리교회와 연합 형제 교회가 연합하여 새롭게 연합감리교회로 탄생하다.



1969: 여성분과는 전미복지권기구(National Welfare Rights Organization)와 파트너가 되어 빈곤과 인종사이의 고리를 밝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을 후원하다.

1970: 미원주민운동과 사우스다코타주의 운디드니에 있는 미경찰들의 대치 상황 속에서 여성분과는 참관자들, 의료진들과 장비, 음식과 물품을 공급하는 에큐메니컬 지원 네트워크의 일부분을 담당하다.

여성분과는 캄보디아에 폭탄을 투하한 것과 베트남전쟁의 고조가 평화 문제이자 인종과 경제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규탄하다.

여성분과는 히스패닉 자문 그룹을 만들다. 이 그룹은 후에 히스패닉 협의회가 되다.



1970-1975 미국

1970-1975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통



1969: 베트남에 주둔한 미군이 오십만 명이 넘다.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 섬을 점령한 인디언은 대략 50개 부족 출신 600명의 원주민으로 늘어났고 미 원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1970: 약 300명의 라코타/수 미 원주민들이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파인 리지 인디언 보호지역의 운디드 니 타운을 점령하고 미 원주민의 권리를 요구하다. 이들 대부분은 아메리칸 인디언 운동의 회원이다. 200명의 미 연방수사요원들, 연방 법원 집행관들, 인디언 사무국 경찰들이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무장을 하고 타운을 포위하다. 미 원주민들은 지상과 헬리콥터에 의한 공격을 받고 두 명이 숨지다. 71일 후에 이 포위 작전은 협상으로 끝이 나다.

1974: 미국 연방 대법원의 “밀리컨 대 브래들리” 결정은 학교 구역 간에는 인종통합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다. 이 판결은 도심 학교 구역 안에 있는 유색인종 학생들과 교외 학교 구역 안에 있는 백인 학생들과의 인종분리를 법적으로 허가하다.

1975: 베트남전쟁이 끝나면서, 백 삼십 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몽족을 포함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로부터 미국에 입국하다.



1970

1975

1972: 연합감리교회에 소속해 있는 모든 여성 단체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라는 하나의 포용적인 이름의 조직으로 결합하다. 이전 선교부의 여성분과는 해외 선교부의 여성국으로 운영되다. 이 새로운 조직은 회원, 지도력, 그리고 비전의 다양성을 높여 가고 있다.

공천과 선출과정은 포용성을 확실히 하고자 전국 여성교회 이사들에 의해서 13명의 여성이 이사로 선출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작되다. 이 규정은 전체 이사들의 수에 따라 비율에 따른 인원 조정이 계속되다.

여성국의 후원을 받아 국제 문제에 대한 첫 스페인어 세미나가 뉴욕시에 있는 UN 교회 센터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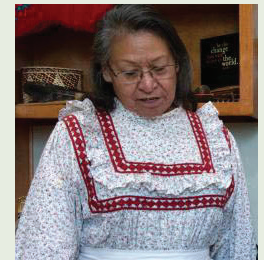
1973: 여성국은 “여성국의 전체 사역”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채택하다.

히스패닉/라틴 여성들의 촉구에 따라 영어 프로그램을 번역하기 보다 스페인어로 된 첫 프로그램이 히스패닉 여성에 의하여 그리고 히스패닉 여성들을 위하여 쓰인다.

1970년대 내내 미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 미국인, 그리고 미 흑인 여성들과 민족-인종 세미나가 이루어지다.

1974: 첫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협의가호놀룰루에서 열린다.

1975: 빌리 노와비(오른쪽)가 여성국의 최초 미 원주민 직원으로 임명되다.



1975-1999

세계화된
자유 시장 전략에
힘입어
인종과 민족의
경제 불평등이
늘어나다

1975-1999

인종 정의
정책 헌장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인종 정의의 증인을
계속 강화 시키다.

1977: 민권의 승리로 중산층의 미 흑인들에게 길이 열렸지만, 도시의 가난한 미 흑인들의 실업, 빈민 주택, 그리고 빈곤의 문제는 심화되다.



1978: 미 연방대법원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대 배키(Bakke)”에 대한 판결은 전문 대학원의 입학 심사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실행을 약화시키다.

1980: 난민법이 통과되어, 박해로 인해 탈출한 난민을 다른 이민자들과 구별된 계층으로 다룰 제도가 만들어지다.

1980-1989: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그레나다, 레바논, 리비아, 이란, 그리고 파나마 내의 미군 간섭은 미국 이민의 새로운 흐름에 영향을 미치다.

1975

1975: 미 원주민 여성 코커스(Caucus)가 미조리주의 캔자스시에서 열린 미 원주민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협의에서 생겨나다. 여성국 이사들은 파인 리지 인디안 보호지역에 대한 연방 공무원과 부족 경관들에 대항하는 미 원주민들을 후원하다.

여성국 이사들은 캘리포니아의 농장 노동자 연합과 오하이오의 농장 노동조직 위원회의 보이콧을 후원하다.

1976: 마이 그레이는 여성국 최초의 미 흑인 여성 회장이다.

1977: 푸에르토리코에서 히스패닉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모임이 열린다.

1977 그리고 1979: 인종 정의 정책 현장에 충실한 여성국은 여성교회 기관 전반에 걸쳐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다. 이 전략들은 미 흑인 회원들과 토, 타인종 지도자들의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공천 위원회 훈련, KKK에 반대하는 관계망 형성,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유색인종들을 은행 업무에서 배제(redlining)하거나 거절하는 불의한 은행의 관례에 저항하는 결의문이 있다. .



1978: 세 번째 인종 정의정책 현장이 채택되다. 마이 그레이는 켄터키주의 루이빌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4년차 대회에서 인종 정의 정책 현장을 소개하다. 수 천명의 여성들이 100년 이전의 노예제도 문제로 감리교 에피스코팔 교회와 분리가 된 지역에서 침묵으로 행진하다.

1980: 총회에서 인종 정의 정책 현장이 채택되다.

여성국 이사들은 2차 세계대전 동안 강제 수용된 일본계 미국인들을 위한 배상금을 후원하다.

1980

1981

1982: 디트로이트에서 제도공이었던 중국계 미국인 빈센트 친이 자동차 공장 일을 일본에 빼앗길 것에 대해 분노한 백인 두 명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아 죽다. 250개 이상의 교회들이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내전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들에게 교회당을 내어준다.

1984: 보팔 참사가 일어난다. 미국 회사인 유니언 카바이드가 소유한 인도 보팔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과 다른 화학품 가스가 새어 나와서 며칠 사이에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심장과 호흡기관 마비로 죽다. 20세 이상의 2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세계 최대의 산업재해로 여겨진다.

1986: 이민 개혁 및 통제에 관한 법령은 3백만 명의 불법 노동자들을 합법화해준다. 그러나 고용주가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면 불법이 되는 제재를 만들어서 두 계층의 노동력이 발생하게 되다.



1988: 미 상원은 일본계 미국인이 세계 2차 대전 동안 강제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1989: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다.

1990: 이민법은 이민자 쿼터를 늘리다. 사람들은 더이상 신념, 진술, 연관성을 이유로 미국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게 되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이 무장화되다. 미국 안에 이민국(INS)과 시민들이 국경선을 넘어오는 이주자들에 대한 폭력과 미국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범하는 일이 증가하다.

1990

1980년대: 20년 동안 광범위한 에큐메니컬 참여와 유명 인사들의 노력을 통하여 1960년대 중반에서 시작된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이 1980년대에 끝이 나다. 1970년 대에 여성국은 반인종차별 단체들과 연합하였고, 여성국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회 교육과 대변을 자체적으로 이어가다. 1985년까지 연합감리교회 감독들, 교인들, 그리고 여성국 직원들과 이사들을 포함한 3천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다.

1982: 여성국은 “여성국 전체 사역”을 통하여 제도적 인종차별을 없애기로 다시 결단하다.

1980년대 내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흑인 여성, 라틴계 여성, 미원주민 여성, 그리고 아시아계 여성들과의 협의를 통해, 언어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하고, 여성교회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다.

여성교회의 자료들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 세계 선교부의 직원인 아르헨티나계 미국 여성 니다 페라리를 고용하다.

1986: 여성국은 남아프리카에서 사업하는 열 네 개 회사에 대한 투자를 멈추다.

여성국은 민주적 개선을 위한 센터(Center for Democratic Renewal)에서 발행된 「혐오 단체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를 후원하다.

1987: 여성국 이사들은 미국 안에 있는 KKK와 다른 혐오 단체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개선안을 승인하다.

1988 여성국은 쉐 경유회사에 대한 보이콧에 참여하기로 투표하고 교단에게도 함께 하자고 강력하게 말하다. 총회는 같은 해에 보이콧을 승인하다.

농장 노동자 연합의 인도자인 시저 차베스는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지속적인 후원을 독려하려고 여성국 본부에 방문하다.

1990-1995 미국

1990-1995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통

1990

1991: 미 흑인 로드니 킹이 로스앤젤레스 경찰들에 의하여 매를 맞고 체포되다.
남아프리카는 인종차별법을 폐지하다.

1992: 국회는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통과시키다. 이 법으로 멕시코에 대한 미국 농업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멕시코 시골의 농부들과 도시의 노동자와 미국으로 오려는 이주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을 찾게 하는 재배치가 일어난다.
배심원단은 로드니 킹에게 못매를 가한 네 명의 경찰관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이것은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에 있는 한인 가게들을 표적으로 하는 도시의 폭동이 일어나게 하다.
보트로 미국 국경에서 아이티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 정부에 의하여 중단, 수감, 그리고 추방되다.

1993: 미국과 멕시코 봉쇄 전략은 이주민들이 사막을 통과해서 오게 만들다. 향후 10년동안 삼천 명이 사막에서 죽다.

1994: 캘리포니아 주민 법안 187번이 통과되어 불법 이민자들의 공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금지시키다. 연방 법원은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다.

1995: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던진 폭탄으로 150명이 죽다.

미국의 대부분의 마약 사용자들이 백인들이지만, 혹독한 새 법으로 기소되고 수감된 사람들의 88%는 미 흑인이었다.

1990: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처음으로 남아시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생긴다. 여성국 이사들은 “선출된 임원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편협하거나 인종차별 태도와 고정관념들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면서, 걸프 위기(Gulf Crisis)에서 오는 반아랍 반발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하다.

1991: 여성국 이사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로드니 킹의 구타 사건의 여파로 경찰들의 과잉폭력에 반대하는 개정안을 승인하고,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태스크 포스에서 경찰의 잔인한 폭력에 대하여 모든 카운티를 수사하라고 전화를 하는 일을 요청하다.

1992: 한국계 미국인 김혜선은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자문가로서 여성국에서 함께 일하다.
캐롤린 존슨(오른쪽)은 전국 여성교회의 두 번째 미 흑인 회장이다.



1993: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스카릿 베넷 센터에서 전국에서 모인 50명의 여성들이 전국 한인 여성교회 훈련 세미나를 시작하다.

1994: 여성국은 여성국 내의 제도적 인종차별을 모니터 하기 위한 정책과 실행을 재다짐하다.

히스패닉/라틴 여성들은 스페인어로 된 50번째 프로그램 책자 출판을 기념하다.

미 한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첫 한국어 프로그램 책자인 「여성들의 삶과 믿음」이 출판되다.

1995





1995

1995: 여성국의 결의안, “세계 인종차별: 인권 침해”가 총회에서 채택되다.

처음으로 선교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고 한인 여성들의 유엔 세미나가 최초로 열린다.

1996: 여성국 이사들의 결의안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후원하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흑인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방화에 대하여 대응을 하다. 여성국 결의안으로 “흑인 교회에 대한 방화”가 채택되다. 한국계 미국인 연회 언어 코디네이터들의 첫 훈련이 북 아틀랜타 지역학교에서 열린다.

총회는 미 흑인 여성들을 위한 배상금 지원에 대한 여성국의 결의안을 채택하다

1997: 미 한인 여성교회 회원들과 관련된 여성국의 모든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도움을 주기위한 미 한인 여성교회의 첫 자문 그룹이 만들어지다.

한인 여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첫 글쓰기 워크샵이 열리고 한인 이민여성들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모은 책, 「꿈꾸는 삶, 사랑의 삶(Life of Dreams, Life of Love)」이 출판되다.

1997-2005: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미 전역에 증오범죄를 감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여성국 이사회는 방화로 소실된 흑인 교회 재건을 돕고 예배를 드리려는 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가적 연대 창설을 후원하다.

여성국은 한국어 뉴스레터를 최초로 발간하다.

1999

1999: 여성국은 결의안으로서 “미국 안에서 증오에 의한 범죄”를 채택하다.

1996: “복지 개혁법”은 가난한 유색인종의 여성 공공 지원에 있어서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시간 제한을 정하다.

미 흑인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이 남부와 미국 전체를 휩쓸다.

“복지 개혁법” 제안서, 반테러 법안, 그리고 불법 이민 개혁과 이민자 책임 법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모든 연방혜택과 주정부 혜택을 가시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비폭력적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민자들의 투옥을 증가시키다. 국회는 멕시코 국경지대에 순찰대를 두 배인 만 명으로 늘릴 것을 표결하다.

1999: 미 연방대법원은 시카고의 배회 금지법을 폐지하다. 이 법은 범죄 행동과 관계가 없는 미 흑인들과 라틴계 청소년들을 불공정하게 목표로 삼았거나 죄가 없는 4만 5천명이 체포당하기도 했었다.

2000-현재

9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정치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세계 사건들은
미국의 인종적
역동성을 바꾸다.

2000-현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사회의 인종 정의
운동과 복잡성 속에서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

2000

2001: 9월 11일에 세계 무역 센터와 국방부가 공격을 받아 3,025명이 죽다.

미 행정부는 국가 안전 단계에 기초한 이민 정책의 단계를 정하고 “테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다.
1,200명이 넘는 아랍인, 무슬림, 그리고 남아시아 남자들이 비밀리에 갇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일으키다.

“미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은 정부가 의심스러운 테러 용의자들, 정보통신 도청자, 불법 자금 세탁자를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준다. 대통령 지침은 의심스러운 테러 용의자들이 법정이 아닌 군사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도록 발표되다.

2002: 다른 막중한 책임들 중에서 모든 이민 집행과 긴급 구조에 대한 책임을 맡을 미 국토안전부가 설립되다.

2002-2003: 미국은 국내에 거주하는 25개의 무슬림 국가의 소년들과 남성들에게 테러자들을 검색하기 위하여 등록과 지문날인을 반드시 하게 한 특별 등록법을 시행하다.
약 13,000명의 남자들이 경미한 이민법 위반에 따라

2002

1999-2000: 여성국은 히스패닉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지역구(jurisdictional) 단위의 훈련을 시행하다.

2000: 전국 사역 계획을 위한 여성국의 마련된 기금으로 이민자들과 난민들과 이주자들을 계속 후원하다.

볼티모어와 워싱턴 연회는 러시아어를 말하는 개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를 처음으로 조직하다.

성서 여성(Bible Women)이라는 시범 프로젝트가 말레이시아에서 여덟 개의 다른 언어 그룹의 참여 속에 개최되다.

에큐메니컬 동역자들과 함께, 여성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 채택을 축하하다. 이 결의안은 전쟁 중에 있는 여성들의 관점과 필요, 평화협정, 그리고 전쟁 후 갈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1: 여성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유엔의 세계 컨퍼런스에 직원들과 이사들의 대표 한 명을 남아프리카의 다반(Durban)에 보낸다.

푸에르토리코의 마그다 모랄레스는 히스패닉 자문 그룹과 스페인어 연회 코디네이터를 하기 위하여 여성국의 첫 히스패닉 코디네이터 정직원이 되다.

한국의 감리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가 미 한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한국에서 아시아 여성 훈련을 함께 개최하다.

2002: “미국 애국자법”의 방식에 따라 여성국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자기들의 지역에서 “시민 자유 안전 지대”를 만들라고 요청하다.
여성국은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몽족, 일본, 라오스, 하와이 원주민, 사모아, 남아시아, 통가,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을 포함하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여성 미국인들을 위한 협의회를 열다. 히스패닉/라틴 연합감리교회의 전국 여성 훈련은 히스패닉/라틴의 젊은 세대 여성을 위한 지도력 개발 기회를 주다.

2003

2003: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이 시작되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시간 법과대학의 정책인 인종은 입학과정에서 대학이 고려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정책을 지지하다.

2003: 여성국 이사회는 유엔의 세계 인종 차별 철폐 컨퍼런스 선언문에 담겨 있는 원칙들에 동의하면서 “세계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 여성과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 결의안을 채택하다. 출애굽기를 통한 영적 성장 공부에 미 흑인 감리교인들이 감리교 교단 안에서 인종차별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본다.

2004: 애리조나주는 애리조나인들이 기초 공공 서비스를 받고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민 법안 100호를 통과시키다. 일부에서는 유권자 등록에 대한 이 내용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들의 투표를 막으려는 현대판 인두세로 보고 있다.

2004: 총회는 여성국의 환경적 인종차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다.

한인 1세 김경자 권사는 아시아인 최초로 여성국의 여성교회 회장이 되다. 아시아계 여성 한 명, 미 흑인 여성 한 명, 라틴계 여성 한 명, 미 원주민 여성 한 명, 그리고 백인 여성 한 명이 여성국의 이사회의 각 부서를 인도한다.



2005: 걸프만을 경유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과 계층의 분열을 조명하다.

연합감리교 여성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미 흑인, 라틴계 사람, 아시아계 미국인, 미 원주민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주 정부에 도전하고자 민주주의 강화 캠페인에 동원하다.

2005: 20개 주에 있는 자경단인 마이뉴트먼 프로젝트(Minuteman Project)는 50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애리조나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조직되다. 그들은 불법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민 당국에 넘기기 시작하다.

2005: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사람들(Repairers of the Breach)”에 대한 여성국 결의안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상황 속에서 인종차별과 계급 문제를 언급하다.

대한민국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는 아시아 여성들을 훈련하는 컨퍼런스를 통해 미 한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동역자가 되다.

2005

2006



2006: 하원의원 짐 센센브레너는 미국에서 이민자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다.

2006-2007: 수백만 명이 H.R. 4437로 불리며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불법 이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외국인과 그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도록 도운 사람을 중범죄자로 구분한다. 시위대는 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하고 국가의 이민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다.



2008: 버락 오바마가 첫번째 미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다.



2008

2006: 여성국은 인종 정의에 대한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들을 추천하기 위하여 백인 여성, 미 흑인 여성, 라틴계 여성, 아시아 여성 및 미 원주민 여성들이 모여서 인종 정의 협의회를 조직하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는 중국에서 여자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주관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와 협력하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을 불법 체류자와 그들을 돕는 모든 사람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법안에 반대하는 편지를 쓰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이민/인권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다.

여성국은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여성들을 넘어 몽어, 크리올어, 타갈로그어, 통가어, 피지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여성들을 겨냥기 위하여 언어 사역 업무를 시작하다.

2007: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휴스턴에서 열리는 이민자 및 난민 권리 전국 네트워크 회의에 2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정의로운 이민을 위한 흑인 연맹이 조직한 국경지역 투어에 참여하다.

내슈빌에서 열린 전국 세미나에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노숙자와 함께 인종 정의를 위해 행동하다.

2008

2010: 증가하는 인종 차별, 악의적 표현, 폭력의 위협이 의료법안에 대한 논쟁을 둘러싸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주 내에서 불법 이민자를 불법화하는 SB1070 법안을 통과시키다.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일반적으로 ACA라고 하며 “오바마 케어” 라고도 불리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발효되다. ACA는 2016년까지 전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빈곤층과 유색인종 5,000만 명의 절반 정도에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다.

2010-2011: 플로리다주의 게인즈빌에서 한 목사가 이슬람에 대한 반감의 표현으로 쿠란(Quran)을 불태우다.

2011: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의 기념관이 워싱턴 D.C. 에서 문을 열다.

미 상원의원이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배제법에 대하여 사과하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기록적인 수의 개인, 2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추방되다.

2008: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2008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후보자들과, 미디어, 그리고 일반 대중이 인종과 성별 그리고 종교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에큐메니컬 이니셔티브인 인종과 은혜 사역에 참여하다. 12월 13일에 뉴욕 연합회 전역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과 연합감리교인들 100여명이 이민세관집행국(ICE) 구금 시설에서 철야 기도회를 열고, 습격, 구금 및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이넬다 곤잘레스가 히스패닉 여성으로서 최초 전국 여성교회의 회장이 되다.

2009: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응답하기 위해 이민세관행국의 습격이 일어났던 장소인 아이오와주의 포스트빌에서 에큐메니컬 그룹과 함께하다.

2010: 여성국의 이사들은 “금홍을 지키되 증오에는 맞서는 목소리를 내라.”고 동참시키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편지를 공식적으로 보낸다. 실천을 위한 촉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와 폭력이 영속되는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에 등장하다.

2010년 미조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여성교회 4년차 대회에 모인 수천명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이민권, 시민권, 그리고 인권을 위하여 시위하고 기도하다. 그녀들은 또한 국토안전부 장관에게 가정의 연합과 인종차별을 위한 프로파일링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엽서를 써 보낸다.

2011: 뉴욕시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2011년 9월 10일 뉴욕시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반이슬람 운동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가치를 위한 뉴욕 이웃 단체”에 의해 열린 종교간(interfaith) 기도회에 참여하다.

2011



2012

2013: 1965년 투표권법의 문제가 있던 주요 조항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 조항들은 “원래 정당화되었던 조건들이 더 이상 해당 관할구역 내의 투표를 특징짓지 않는다.”는 대다수의 결정에 담겨 있던 조항들에 대한 무효판결이다.



조지 짐머만이 2012년 흑인 트레이번 마틴을 살인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다. 이 무죄 판결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종적 편견으로 고통을 주는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불을 붙인다.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BlackLivesMatter) 운동은 알리샤 가르자, 오팔 토메티, 패트리스 컬러스의 지도력에 의해 트레이번 마틴이 살해된 후 수백만 명의 시위대가 동원되면서 시작되다.



2012: 이스라엘은 지지하고 무슬림에는 반대하는 “문명인과 야만인 사이의 전쟁”이라는 광고의 증오 표현에 반박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뉴욕시와 워싱턴 D.C. 지하철 전역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다. “혐오표현은 문명적이지 않다.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지지하라.”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인종정의의 교육 및 옹호의 실천을 핵심 지도력 개발 중점 사업으로 통합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정의로운 경제와 환경과 건강 그리고 접근성 기준과 인종 정의가 만나는 조직 내부 안에서 이 문제를 확대하다.

미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지도력, 선교, 그리고 사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탐색하며 전략화 하기 위하여 미 원주민 여성 협회가 열린다.

2013

2013: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6차 이주와 개발과 인권에 대한 지구적 민중행동 (People’s Global Action on Migratio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연례 행사를 공동 주최하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의 수백 명의 풀뿌리 지도자들과 조직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다.

2013



2013: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이사들은 수년간 노력해 온 미 원주민에 대한 회개의 실천(the Acts of Repentance with Native Americans)에 대하여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감리교 전체와 더불어 착수하다.

뉴욕시의 유엔 건물 맞은편에 있는 유엔을 위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센터가 50주년을 기념하다. 이 센터는 평화와 정의의 문제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들과 종교간 단체들의 집이 되어 섬기는 일을 계속하다.

2013-2016: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연합감리 교단으로 부터 독립적인 조직이 되고, 이사회 규모를 줄이고, 프로그램 자문 그룹을 추가하다. 새로운 이사회 임원은 조직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리적, 언어적,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다. 새 임원으로는 이베트 차드슨(회장), 투포 켈레메니(부회장), 베키 톰슨(총무), 주디스 피에르-오커슨(관리 위원회 의장), 니키아 베르비어 가이(재정 위원회 회장)가 있다.



2014: 흑인 에릭 가너가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뉴욕시 경찰관에게 살해당하다. 가너가 계속 “숨을 쉴 수 없다.” 라고 간청했지만 이 경찰관은 이를 무시하고 그를 15초 동안 목을 조르다. 시 검시관에 따르면 가너의 죽음이 살인이라고 판명했지만 이 경찰관은 기소되지 않다. 이 경찰관의 기소 불허로 인해 가너를 위한 정의, 더 크게는 책임성 있는 경찰의 정의를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과 뉴욕시에서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일어난다.

18세인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미조리주의 퍼거슨에서 경찰에 의해 치명상을 입다. 총상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기소 불허 때문에 퍼거슨과 전국에서는 항의 시위와 봉기가 일어난다. 경찰의 폭력성과 무너지고 편향된 사법제도를 폭로하기 위하여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로 나서다.

2014

2014

2014: 미국은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에 가족 구금 센터를 다시 열다. 이 시설은 주로 중앙 아메리카의 난민 여성과 폭력을 피하려고 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극심한 빈곤 여성들을 수용하다.



2014: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무장하지 않은 흑인들을 경찰관과 자경대들이 죽이는 일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대량 구금의 큰 위기가 교회와 세계를 위한 인종 정의의 문제라고 말하는 비판적인 공개 성명을 통하여 대응하다. 직원들과 지도자들과 회원들 간에 지금까지 현재에도 계속되어 온 인종차별에 맞설 방법들에 대하여 대화가 이루어지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전국의 선교 기관들은 미 남부 국경선을 넘어오는 피난민들의 증가에 대하여 돌봄 센터를 열고 미 정부가 정책을 바꾸라고 항변하다. 많은 피난민은 중앙아메리카에서 전쟁, 폭력, 그리고 경제적 결핍을 피해 도망오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며, 이러한 상황은 주로 미국과의 무역 및 이 지역의 외교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사무총장, 사회적 실천의 총무, 여성교사역자(Deaconess),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수십명의 동역자들은 매일 1,100명을 추방하고

가족을 갈라놓는 정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도덕적 명령(moral imperative)을 표현하려고 공개 증언에 참여하고 체포되다.

2015

2014



2015: 경찰에 구금되어 있던 흑인 프레디 그레이가 사망한 후, 볼티모어에서 경찰의 학대에 항의하기 위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다. 이 시위는 증가하는 “흑인의 삶을 위한 운동”의 일부로서 경찰의 잔혹 행위를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적 인종차별의 근본 원인을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키스톤 XL 송유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다. 송유관 건설은 캐나다 오일샌드에서 오염이 심한 석유 이동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일샌드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은 전통 오일을 정제하는 것 보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약 17% 더 많이 발생시킨다.

201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마더 임마누엘 흑인 감리교회 교인 9명이 저녁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자칭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21세의 백인에게 살해당하다. “임마누엘 9”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41세의 주 상원이자 담임 목사인 클레멘타 피크니부터 87세의 성가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사를 하였다.



2014: 2014년 켄터키주 웨스트루이스빌에서 모인 4년차 대회에서 인종과 경제 불평등에 대한 공적 실천을 강조하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정의로워라 푸르러라(Be Just. Be Green,)” 캠페인이 이 대회에서 시작되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13단계”로 요약되는데 회원들에게 성별, 인종, 경제 및 기후 부정의를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방법이 제공된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유엔과 타기관에서 온 영향력이 있는 강사, 예술가, 그리고 대표자들과 함께 국제 평화의 날 심포지엄을 개최하다. 이 모임은 음식, 물, 그리고 건강 같은 인간의 핵심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 어떻게 성, 기후변화의 불안, 그리고 폭력적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에 초점을 두고 열린다.

2015: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미국 전역에서 온 “가족 구금 중단” 캠페인 단체들과 함께하다. 가족 구금은 임신부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이들의 상당수가 중앙아메리카의 전쟁과 빈곤 때문에 피난 온 난민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구금하려고 정한 정책이다.

볼티모어 워싱턴 연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9개의 연회가 있는 동북부 지역회를 위한 인종 정의 세미나를 버지니아주 블랙스톤에서 주말에 개최하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15주년을 기념하다. 이 결의안은 전쟁 동안에 여성의 관점과 필요 그리고 관심사, 평화 협정, 갈등 이후 재건에 초점을 둔다.

2015

2016: 미시간주의 제네시 카운티 주민들은 플린트 강으로 방출된 납과 기타 독소로 오염된 물에 중독되다. 흑인 어린이들이 납중독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백인 어린이 숫자의 3배에 해당하다.

스탠딩록에 사는 미 원주민 수 부족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kota Access Pipeline) 건설이 승인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수개월간 시위하다. 이 건설은 이 지역의 수원과 부족의 신성한 매장지를 위협한다. 이 시위 야영은 법의 강제 이행으로 인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과 잔혹함에 직면하였다.

도널드 J.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다. 그는 멕시코인을 강간범이라고 부르고 모든 무슬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하는 인종차별적 수사학을 사용한 캠페인을 벌였다.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에 따르면 미국 내 증오 집단의 수가 아주 짧은 기간에 증가하고 있다. 가장 극적인 성장은 반이슬람 증오 집단의 수가 거의 3배로 증가한 것이다. 2015년에는 34개였으나 2016년에는 101개로 증가하다.

2017: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7개의 국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두 개의 행정 명령(13769와 13780)에 서명하다. 이 명령은 미국 전체 난민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전국의 공항에서 시위가 일어난다. 연방 판사들은 이러한 “무슬림 금지 명령”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중단하다.

버지니아주의 샬러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신나치주의자들이 백인 민족주의자들을 동원하고 단결시키려고 집회를 열다.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반대하기 위하여 반대 시위자들이 모이다. 반대 시위자 한 명이 사망하고 많은 시위자들이 부상을 당하다.

2016

2017



2016: 2016년 11월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CEO 겸 사무총무인 해리엇 제인 올슨(왼쪽)이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저항하는 “물을 보호하려는 사람들(water protectors)”인 원주민들과 연대하려고 노스다코타 스탠딩 록 보호구역에 방문하다. 이 증진행위는 억압과 추방을 중단하게 하고,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과 플린트 미시간 물 위기에 대하여 저항을 한 사람들과 같은 지역의 저항적 노력을 도우려는 일을 옹호하고 행동을 하려는 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지도력 개발의 노력과도 일치하다.

인종정의헌장지원(RJCS)팀이 처음으로 소집되다.

2017: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에큐메니컬 종교간 동역자들과 함께 무슬림을 표적으로 삼는 것에 도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불법체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 대하여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없애려고 하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드림러들(Dreamers)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다.

2018

2018: 새로운 “무관용 정책”은 수천 명의 어린이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가족들과 분리되는 결과를 낳다. 미 전국의 시위는 이주자 가족 분리의 가혹함을 종식시키라는 요구를 하다.

피츠버그 생명의 나무 유대인 회당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신 나치 테러주의자가 안식일 예배에 모인 회중들을 공격하여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다.

2019: 텍사스주 엘파소의 월마트에서 반라틴계에 대한 대량 총격 사건으로 23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치다.

텍사스주에 사는 미 흑인 여성 아타티아나 제퍼슨은 조카와 비디오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집 창문에 총을 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다.

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으로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미국의 유색인종들이 불평등하게 영향을 받다. 미 원주민 나바호 네이션(Navajo Nation)은 코비드19로 인해 죽음의 물결을 경험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라고 언급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에 불을 붙이다.

경찰과 자경단의 흑인에 대한 폭력은 계속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흑인 청년 아마드 아버리(Ahmaud Arbery)가 조깅을 하던 중 죽임을 당하다. 브레오나 테일러는 그녀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살해당하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간 눌러 죽음에 이르게 하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시위와 봉기는 정의와 조직적 변화를 요구하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서도 지속되다.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이며 남아시아계 여성으로서 미국의 첫 부통령으로 선출되다.

2020

2018: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담대함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성교회 4년차 대회를 열다. 회원들은 오하이오 주 의사당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계임금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2019: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기후 정의와 환경적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면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에너지”를 확실히 하려는 캠페인의 일부분으로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기(Faith to Ford)” 편지를 써서 전달하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학생들의 기후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다.

중앙텍사스 연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SayHerName 캠페인으로 회원들을 동원하여서 아타티아나 제퍼슨을 애도하고 #WhatsNext의 철야 집회에서 정의를 외치다.



2020: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직행선 (school-to-prison pipeline)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아이아나 프레슬리 하원의원에 의해 소개된 “강제퇴학 (PUSHOUT) 중단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살인을 비난하고, 반인종주의에 대한 재결단과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이사회는 성평등, 선교의 상호성, 반인종주의, LGBTQ+의 포용, 그리고 지역화를 중점으로 하는 총회의 조직적 입장을 발표하다.



2021

2021: 백인 민족주의자 무리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여 새 대통령에게 평화로운 책임 이양을 방해하려 하다. 이 행동은 퇴임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조장되다.

인종 차별적 살인 사건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아시아계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차별적 중요범죄에 의한 것이다. 8명이 목숨을 잃게 된 이 범죄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AAPI)에 대한 증오와 폭력에 의한 지속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2022: 한 명의 백인 우월주의자가 뉴욕 버팔로의 식료품점에서 미 흑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10명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하다. 연방대법원은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고 여성의 출산 자율권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종식시키다.

2023: 연방대법원은 대학과 대학교들이 고등교육에서 인종적 다양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훼손하면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뒤집다. 연방대법원은 원주민 아동복지법(ICWA)을 지지하다. 이 법은 미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아동들과 가정들을 위한 주요 보호 조치이다.

10월 7일에 1,2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인과 다른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200명 이상이 인질로 잡히다. 33,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된 전쟁에서 살해당하다. 가자 지구의 대부분 팔레스타인인은 그 안에서 실랑민이 되다. 성별에 따른 피해가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제 법원에 대량 학살 혐의를 제기하다. 미국 내에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유대계 미국인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사례가 증가하다.

2024: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들은 희생양이 되다.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들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다.

*출판 당시의 숫자

2024

2021: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직행선 종식에 초점을 둔 연합체인 “학교에서 존엄성을 위한 조정 위원회” 캠페인에 참여하다.

2022: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영어 이름을 United Women in Faith로 바꾸고 인종과 기후 정의에 주로 초점을 둔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함께 하기 (Impact JOIN)”를 시작하다.

2022-2023: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엄마가 되어가는 소녀들(Girls Embracing Mothers)”과 “미 원주민을 위한 7세대 기금(Seventh Generation Fund)”에 상당한 장학금을 제공한다. 이는 흑인과 미 원주민 여성들과 소녀들을 중심으로 한 정의를 위한 수고에 대한 물질적 표현이다.

2023: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지도자이고 오랫동안 인종 정의 옹호자인 샬리 보너가 미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사무총장 겸 CEO로 선출되어 야심과 희망에 찬 성장 계획을 인도하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가자지구의 인권을 옹호하며 전쟁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비난하고 휴전과 모든 인질에 대한 석방과 가자지구 봉쇄의 종식, 인도주의적 접근과 무기 금수 조치, 여성과 여성 단체와 젠더에 민감한 관점에 대한 평화적인 절차를 요구하다.

2024: 수십 년간의 투쟁 끝에 총회는 LGBTQ+의 성직자와 동성 결혼에 대한 금지를 철폐하기 위한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다.

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기후와 인종 정의에 대한 결의는 여성교회 조직이 투자의 탈탄소화(decarbonizing)와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의 철회를 옹호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

또한 총회는 전 세계의 여자 아이(The Girl Child)에 대한 결의안을 지지하는 표결을 하다. 이 결의안은 전세계 여자 어린이들이 직면한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일할 의무가 교회에 있음을 인정한다.



사진 저작권**앞 표지:**

1. 사진: 도로시아 래 공유

속 안 표지:

1.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3쪽:

1. 사진: 폴 제프리

8 쪽, 왼쪽 단:

1. 사진: 공유
2. 사진: 미국 국회 도서관의 인쇄와 사진부
3. 사진: 공유

8 쪽, 오른쪽 단:

1. 사진: 공유
2.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3. 사진: 공유

9 쪽, 왼쪽 단:

1. 그림: 존 T. 맥커천, 공유

9 쪽, 오른쪽 단:

1. 사진: 이화여자대학교
2.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10 쪽, 왼쪽 단:

1. 사진: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2. 사진: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10 쪽, 오른쪽 단:

1. 사진: 연합감리교회
2. 사진: 세인트 폴 신학교 제공

11 쪽, 왼쪽 단:

1. 사진: 미국 국회 도서관의 인쇄와 사진부
2. 사진: 미국 국회 도서관의 인쇄와 사진부

11 쪽, 오른쪽 단:

1.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2. 사진: 공유

12 쪽, 왼쪽 단:

1. 사진: 미국 내무부
2. 사진: 캔자스 역사사회

12 쪽, 오른쪽 단:

1. 사진: 오스틴 역사 센터, 오스틴 공공 도서관, FP E.4 D #9
2. 사진: GCAH 제공

14 쪽, 왼쪽 단:

1. 사진: Creative Commons
2. 사진: Creative Commons
3. 사진: 미국 국회 도서관의 인쇄와 사진부

14 쪽, 오른쪽 단:

1. 사진: GCAH 제공

15 쪽, 왼쪽 단:

1. 사진: 리틀 록 대학교

15 쪽, 오른쪽 단:

1. 사진: GCAH 제공
2. 사진: 에모리 대학교의 Stuart A. Rose 원고, 기록보관, 그리고 회귀 도서 도서관 제공
3. 사진: 연합감리교회

16 쪽, 왼쪽 단:

1. 사진: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2. 사진: 위키피디아

16 쪽, 오른쪽 단:

1. 사진: 베넷 대학

18쪽, 왼쪽 단:

1. 사진: 공유
2. 사진: 연방수사국(FBI)
3. 사진: 연방수사국(FBI)
4. 사진: 연방수사국(FBI)

18 쪽, 오른쪽 단:

1. 사진: 감리교회
2.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19 쪽, 왼쪽 단:

1. 사진: 연방수사(FBI)
2. 사진: 미국 국회 도서관의 인쇄와 사진부
3. 사진: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19 쪽, 오른쪽 단:

1.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2.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20 쪽, 왼쪽 단:

1. 사진: 국가 사적지등록부
2. 사진: 미국 국방부

20 쪽, 오른쪽 단:

1. 사진: 오클라호마 촉타 족

22 쪽, 왼쪽 단:

1. 사진: 공유

22 쪽, 오른쪽 단:

1.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23 쪽, 왼쪽 단:

1. 사진: Raphaël Thiémarc

24 쪽, 왼쪽 단:

1. 사진: 국방부

24 쪽, 오른쪽 단:

1.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25 쪽, 왼쪽 단:

1. 사진: 사회보장국

28쪽, 왼쪽 단:

1. 사진: 미국 해안 경비대, 공유

29 쪽, 왼쪽 단:

1. 사진: 공유
2. 사진: z2amiller
3. 사진: 공유

30 쪽, 왼쪽 단:

1. 사진: 국립 공원관리청

31 쪽, 오른쪽 단:

1. 사진: 메그 맥키니,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9(UMW)

32 쪽, 오른쪽 단:

1. 사진: 마크 윌슨/게티 사진

33 쪽, 오른쪽 단:

1. 사진: 연합감리교회의 유엔 사무실
2.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MW)

34 쪽, 왼쪽 단:

1. 사진: 폴 제프리
미국 내의 중앙아메리카 난민들
엘살바도르에서 온 난민들.
실비아 페냐도(왼쪽) 그리고 머나 바스게스는 딸 카타린과 함께 2015년 12월 2일에 텍사스의 산안토니오 비행장에 앉아 있다.

34 쪽, 오른쪽 단:

1. 사진: 폴 제프리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텍사스의 이민 구치소에서 나온 중앙아시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 백팩과 가방에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넣고 있다.

35 쪽, 왼쪽 단:

1. 사진: Wikimedia Commons

35 쪽, 오른쪽 단:

1. 사진: 마이크 데보스, UNMS

36 쪽, 왼쪽 단:

1. 사진: Rhododendrites

36 쪽, 오른쪽 단:

1. 사진: 다나 페오

38 쪽 오른쪽 단:

1.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WFaith) 로고
2. 사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WFaith)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기독교적 영성 형성,
지도력 개발, 창의적인 친교, 그리고 교육을 통해
여성을 연결하고 양육을 함으로써
개체 여성교회와 글로벌 공동체에
영감을 불어넣고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uwfaithresources.org